

## 신문의 死活은 회원에게 달렸다

-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며

Membership is most critical

- preparing for the launch of 『Architectural Culture Paper』

경제와 부동산 등 물리적 지표를 지향하는 건설신문은 있으나 예술과 문화로써 건축을 논하는 신문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 건축문화신문은 정부와 국민에게 건축을 문화예술로 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범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국내외 최신정보를 전달하여 아름다운 창작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 한다.

위의 글은 본 협회에서 9월에 창간할 건축문화신문의 목적을 담은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건축문화 발전과 정부 및 국민의 건축문화 함양.
2. 범 건축계의 유일한 정론지로서 역할 담당.
3. 건축사 업무활동을 위한 전문적 지식의 보급.
4. 올바른 건축정책 구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대안 제시.
5. 건축사 및 협회의 이미지 제고.
6. 웹진 및 건축방송과 결합한 24시간 쌍방향 신문 지향.
7. 독자층의 다변화.

그간의 준비과정을 돌이켜 보면 제호의 결정, 목적과 목표의 설정, 자문위원, 논설위원, 편집위원의 선임, 건축사기자의 모집, 창간호의 준비, 광고대상 선정 및 문안작성, 각 면의 편집내용 작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업을 해왔다. 이중위원의 선임 외에는 가능한 한 독자회원과 같이 하기 위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호응도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호공모에서는 소정의 현상금도 걸었으나 다섯분만이 참여하였다.

주관자로서는 최소한 수십명이 참여하리라 추정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제호가 많은 것이 당선작이 되고, 수상은 그 중에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사기자 모집에서도 나타났다. 각 시·도주재 기자는 시·도회에 위임한 결과 두분씩 모두 선임이 되었으나 자율적으로 공모한 기자 모집에는 지방회원 세분만 응모하고, 정작 가장 많이 뛰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단 한분도 자원이 없었다. 결국 동분서주하여 20여분의 건축사를 기자로 모시기로 하였기에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기자연수 등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신문은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  
독자의 적극적이 참여만이 신문을 활성화, 영속화 할 수 있어  
원고모집 요강에 따라 자신 있는 부문에 스스로 참여하자

인재의 구성과 더불어 난제로 봉착한 것이 광고의 수주이다. 대개 당년도 광고예산은 그 전해 작성되는 관례로 4/4분기를 앞둔 현실에서 광고의 수주는 지난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내년도 광고수주를 위해 뛰어야 할 시기이다. 더구나 어려움은 광고전담 직원의 부재이다. 기존의 홍보편집팀 3명으로 그간 해오던 일 외에 신문을 만들고 광고까지 수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전담직원의 부족이 어려움이다.

8년 전 건축사신문의 창간을 위해 전직 일간지 기자를 채용하여 시험호까지 제작하였는바, 주간 신문을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이 6명이었다. 따라서 6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경우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본 건축문화신문은 목표와 목적에서 보듯이 급하게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멀리는 미래 후배들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주고 이 나라 건축문화의 창성을 위하여 발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년 후에는 협회의 보조 없이 재정적 독립도 해야 하는 명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집국장을 회원으로 보하여 최소한의 파트타임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소정의 원고료만을 지급하는 건축사 기자제도를 활용하려 한다.

신문의 지면구성을 살펴보면 뉴스와 사실, 평론 그리고 해외건축작품, 신기술 등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회원을 비롯한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도시경관이나 건물 간판에서 도로나 화장실 등 실내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것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한 것은 고쳐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독자 사진으로 게재하고, 건축주나 시공자 등에게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겪은 기막힌 사연들과 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뒷이야기를 정리한 설계야화, 학창시절의 은사부터 건축사보 시절의 소장 건축사 또는 친지 등 잊지 못할 분들에 대한 단상, 삶을 바꾸게 한 애독서, 현실문제에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일상의 일에서 잠시 벗어나 삶을 관조하면서 쓰는 수상록, 작품의 계획부터 완공까지 스케치와 글로 기록하는 작품노트, 자신의 작품을 게재하는 금주의 작품, 독자만평과 독자문단, 그 밖에도 나의 집 공개, 나의 컬렉션, 나만의 특별한 취미 등 지면의 70% 이상이 독자들의 참여로 꾸며진다. 이러한 독자나 시청자 참여가 많아지는 현상은 경제적인 면 외에도 최근 매스 미디어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한 달 후면 태어날 신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의 참여로 지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된다면 앞서 기술한 자원인력 부족, 광고 부족, 전담인력 부족은 헤쳐 나갈 수 있다. 본 신문이 모든 건축인은 물론 국민과 정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지금 원고 모집 요강이 본지에 실렸다. 또한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고 원고청탁도 할 것이다.

교회의 참다운 신도는 10의1조를 준행한다. 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할애하는 것이다. 불도들의 보시 등 다른 종교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 내가 가입한, 나를 위한 단체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과 서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전 회원이 3년에 하루, 1,000의1조만 시간을 할애해도 월 25건의 원고가 생산되어 풍성하고 사랑받는 신문이 될 것이다. 재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